

만언사 | 안조환

어와 벗님네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인생 천지간(天地間)에 그 아니 느껴온가.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지 백년(百年)이라,
하물며 백년이 반듯기 어려우니,
백구지과극(白駒之過隙)이요 창해지일속(滄海之一粟)이라,

역려(逆旅) 건곤(乾坤)에 지나는 손이로다.

빌리어 온 인생이 꿈의 몸 가지고서,
남아(男兒)의 하울 일을 평생(平生)을 다 하여도,
풀끝에 이슬이라 오히려 덧없거든,
어와! 내 일이야! 광음(光陰)을 헤어보니,
반생이 채 못 되어 육륙(六六)에 둘이 없네.
이왕 일 생각하고 지금 일 헤아리니
번복(翻覆)도 측량없고 승패(勝敗)도 그지없다.

승침(昇沈)도 하도할사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아모리 내 일이라 내 역시 내 몰래라.
장우단탄 절로 나니 도중상감 뿐이로다.
부모생아 하오실 제 죽은 나를 나오시니
부귀공명 하려던지 절도고생 하려던지
천명이 기압던지 전반을 시험할 제
일주야(一晝夜) 죽은 아해 홀연히 살아나네.

사주팔자 무어내어 평생을 점복할 제
수부강녕 가자시니 귀양 살 성 있었으랴
비단채의(彩衣) 몸에 입고

노래자를 효칙하여

부모 슬하에 어린 채로 시름없이 자라더니
십일세에 자모상(慈母喪)에 나의 명도 기박(奇薄)하다.
혈기미성 어린 기운 호곡에통 운절(殞絕)하니
그때나 죽었더면 이때 고생 았았으리.

종천지통(終天之痛) 슬픈 눈물 매봉가절 몇 번이고.
십년양육 외가은공 호의호식 그려시랴.

잇은 일도 만타마는

봉공무가(奉公無瑕) 함이로다.

어진 자당(慈堂) 들어오셔 임사지덕(妊媿之德) 가지시니
맹모의 삼천지교 일마다 법이로다.
증모의 투저(投杼)함은 날 믿어 아니시리.

설리에 음죽함은 지성이 감천이요,

백리의 부미함은 효자의 할 바로다.

입신하여 양명(揚名)함은 문호의 광채로다.

행세(行勢)의 으뜸 일이 글밖에 또 있난가.

아, 친구야 내 말 좀 들어 봐

인생이란 것이 세상에, 북받쳐서 벅차오지 아니 하겠느냐
평생을 살아도 백년인데

하물며 백년 인생을 사는게 참 어렵다

문틈 사이로 하얀 강아지가 지나는 것만큼 시간은 빠르고,
인간이란 넓은 바다에 한 알의 좁쌀처럼 보잘 것 없구나

그렇게 보면 세상이란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관과 같고
우리는 거기를 지나는 손님이로다

비루한 내 인생, 한날의 꿈과 같은 몸을 가지고서

남자의 할 일을 평생 다 해도

풀끝에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지니 오히려 덧없는데

하물며 내 처지야, 세월을 헤아려 보니

절반도 아직 다 살지 못해서 육육은 36에 둘이 없는 나이, 서른 넷이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지금을 헤아리니

이리저리 일이 뒤집히는 일이 한이 없고, 이기고 지는 것도 다 말할 수 없다

남들도 인생이 좋았다가 나뻐다가 하는가, 나만 혼자 이러한가

나 역시 내 일이라 해도 도리어 모르겠구나

길고 짧은 탄식이 절로 나니 상실감만 더해갈 뿐이로다

부모님이 나를 나오실 때 죽은 나를 낳으셨는데,

부귀공명을 하려는지 욕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고생을 하려는지

하늘로부터 타고난 명이 길었는지 그 모든 것을 시험할 때

하루만에 죽은 아이가 홀연히 살아나니

사주팔자를 물어 내어 평생을 점쳐보니,

장수와 부귀, 건강과 안녕을 모두 가졌으니 귀양살이 할 사주가 있었으랴

비단옷을 몸에 입고 70세에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에게 애교를 부렸던

노래자를 본받아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자라며 걱정없이 자랐다

그런데 열한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나의 운명이 기구하다

혈기를 이루지 못한 어린 기운으로 가슴 아파하며 소리 높여 울다가 기절하니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지금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늘에 닿을 듯한 슬픔으로 매번 명절을 맞이하던 때가 도대체 몇 번인가

십년동안이나 길러주신 외갓집의 은공에 호의호식을 부족하게 여겼으랴

잇은 일도 많지만 그 공덕을 갚기 위해

힘써 일하며 한가할 틈이 없게 하리로다

어진 새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부인으로서의 덕을 가지고 계시었으니

하시는 일마다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으시고

증자 어머니가 증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베틀의 복을 내던진 일처럼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시니,

오나라의 효자 맹종이 한겨울에 죽순을 드시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눈 속에서 죽순을 캔 일은, 그 정도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하기 때문이요

공자의 제자인 자로와 같이 백리가 넘는 길을 쌀을 지고 와서

어머니를 부양함은 효자가 할 일이다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로다

사람이 태어나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데에 제일가는 일이 글밖에 또 있는가